

제403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22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24인 발의)(의안번호 2119672)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2)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7)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9)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6)
13.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1.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24인 발의)(의안번호 2119672) 2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2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2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2) 2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2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 ... 2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7) 2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9) 2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6) 2
13. 업무보고 5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문화재청

(14시09분 개의)

○위원장 홍익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 실시간으로 자막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석에 노트북이 있는데 아마 배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0분)

○위원장 홍익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안건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24인 발의)(의안번호 2119672)

(14시11분)

○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2년 2월 우리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하여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추천서 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유네스코의 심사가 보류되었지만 금년 1월 일본 정부는 재차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과 제안이유 및 주문 내용이 같고 전문 위원회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히 수정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달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71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53)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82)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006)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67)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696)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697)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79)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76)

(14시12분)

○**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각각의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윤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0일 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2건의 수정안과 1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성·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장애인체육지원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김윤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용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1일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수정안, 1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묶어 보완하고, 둘째 집합적으로 분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며, 셋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장래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는 임시국가등록문화재나 예비문화재로 등록 또는 지정하여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해 수리기준의 보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의 건폐율 특례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으므로 건폐율의 추가적 완화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며 예비문화재 제도와 우수

건축자산제도의 상호보완적 체계를 위해 동 제도를 예비문화재 선정 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이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등록문화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동 법률안에서 신설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였고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발견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동산문화재가 발견된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역사 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 또는 점유를 증명하는 때에는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찰의 탑 등에서 발견된 사리나 불상 등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로 보도록 하고 매장문화재의 정의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으로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는 매장문화재의 범위에 존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이용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8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경기 예매와 관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스포츠를 통한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KBO와 함께 서울, 광주, 부산 3개 지역에서 시각장애인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의 차별 없고 공정한 스포츠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운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문화재청 소관 4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호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을 유연하게 보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13.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문화재청

(14시26분)

○위원장 홍익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와 비전을 정책 속에 공세적으로 주입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문체부가 정성을 기울이는 K-콘텐츠산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수출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TV·냉장고의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넬을 추월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성공, BTS 아티스트 정국의

카타르월드컵 드리머스 무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과시하고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국민의 품에 안긴 청와대는 역사·문화·예술의 거대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방 8개월 동안 280만 국민이 관람했으며 장애인 미술 전시회와 청와대 K-문학 소설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민관이 함께 하는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도약을 다짐하는 새 정부 첫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님과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국가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정부 스포츠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들어갈 장르에 스트리트 댄스, 뮤직비디오, 웹툰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과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의 자율등급제 시행, 학생선수의 운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 개혁,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축제와 행사의 축소·폐지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혁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정책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용만 제2차관입니다.

강석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박용철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구경렬 감사관입니다.

최성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향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은복 예술정책관입니다.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김용섭 소통정책관입니다.

김현준 소통지원관입니다.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이정미 체육협력관 직무대리입니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김장호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장입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입니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이진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지금까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체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2023년 중점 추진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부는 K-컬처가 이끄는 국가 도약,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K-콘텐츠, 수출 강자 위상 강화, K-관광으로 국제관광무대 주도,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확대를 목표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콘텐츠산업은 수출 전선의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입니다. 경제 도약을 이끌 특급 견인차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78%가 청년입니다. 예비창업자의 꿈과 상상력, 신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실현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간 1만 명의 콘텐츠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K-콘텐츠펀드, 완성보증 등 79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K-콘텐츠 대표 장르의 글로벌 지평 확대와 경쟁력 강화는 필수 정책입니다. BTS,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전 세계 어디서나 K-팝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즉시 유통되는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OTT

특화 콘텐츠 지원정책도 짜임새 있게 펼치겠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인 웹소설과 웹툰의 종주국 위상을 굳히기 위해 조회수 10억 뷰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수출 지원과 콘텐츠 IP 보호를 위해 한류데이터센터가 단단하게 구축됩니다.

K-콘텐츠의 빼어난 작품성과 브랜드 가치는 우리나라 제품 전체의 가치를 동반 상승시킵니다. K-콘텐츠의 후광 효과, 프리미엄 효과를 기회로 포착하여 연관 제조업, 서비스업의 해외 동반 패키지 진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3C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융합, 관광콘텐츠 발굴, 편리하고 안락한 K-관광의 전략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방문의 첫해로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 전진시킬 키포인트인 K-컬처를 관광에 탑재하여 독보적인 융합으로 한국 여행을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주변 박물관과 미술관, 북촌과 서촌을 연결한 관광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입국제도, 교통, 쇼핑 등 안락한 한국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자유와 보편적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기초예술을 K-컬처의 차세대 주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년간·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작품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작 대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한예종의 영재교육원 추가 조성,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인재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키우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클래식, 미술, 문학 등 K-아트는 문화 수출시장의 신흥 강자 블루칩입니다. 임윤찬, 최하영, 양인모를 앞세운 K-클래식의 성취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술진흥법 제정, K-뮤지컬국제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밀어주기 위한 해외진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번역 업종 지원도 강화합니다.

16쪽입니다.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집니다.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확대, 문화특화클러스터 육성,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 등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전남-부울경 연계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합니다. 위케이션, 살아보기형, 야간관광 등 지역만의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은 관광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립박물관·미술관 디지털 무장에 관람환경 개선, 열린 관광지 조성,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3월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년 어르신 세대의 문화향유 욕구가 문화를 직접 창작하는 행위로 확장됐습니다. 단순 복지 차원에 머물던 이야기할머니사업은 구연 창작예술로 그 지평을 넓히고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등 예술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가 전 세계 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종학당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확장하겠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K-스포츠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이 새롭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100조 원의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기업이 될 때까지 제품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K-컬처와의 융합, 신소재 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 원으로 추산합니다.

모든 종목에서 제2, 제3의 손흥민을 발굴하고 훈련, 브랜드 관리,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을 키우겠습니다.

AI, 메타버스, 챗GPT를 접목하는 스포츠 훈련의 과학화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은 함께 구르는 두 바퀴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흥미를 느끼도록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활동 지원과 지역 맞춤형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국제스포츠대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K-컬처를 탑재한 개·폐회식으로 지구촌 젊은 세대에게 스포츠와 문화의 융합에 대한 상상력을 주입하고 K-컬처를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해 365일 끊임없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콘텐츠 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 주요 대도시 15곳을 대상으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K-컬처의 매력을 활용해 한국 방문 수요를 공세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 올 한 해, 저와 문체부 모든 직원들은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현장에 계신 드리머스(Dreamers)의 독창성과 상상력을 담은 정책으로 세계일류문화매력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유

산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제언과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재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훈 차장입니다.

이종희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원일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올해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 및 평가 등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개의 주요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첫 번째 전략과제인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60년 동안 변화하고 확장된 문화유산 정책 환경을 수용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자체 현장 전문성 미흡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산업화, 도시화로 지역적·인적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기 위해 국가유산체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치 있는 미래유산의 발굴 및 체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비지정 문화유산 보호 강화, 미래 문화유산 발굴·육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중요 유산의 핵심가치 발굴 및 체계적인 원형 보존을 위해 문화유산 유형별 학술조사 연구 등을 확대하는 한편 발굴조사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토유물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재료 및 수리기술 진흥을 통한 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통재료 수급계획 마련, 전통기술 연구 및 수리현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유산 보존·활용법 제정, 전통조경의 유형별 복원·정비 기준 마련 및 지질 유산의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교문화유산의 보수 정비 지원 확대, 유형별 자원조사를 통한 가치 발굴 등을 통해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우리청은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문화유산 재난안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현장 방재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청 등 재난 대응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유산의 도난, 불법반출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확고한 문화유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의무배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운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상시 보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행위기준 관리를 구체화하고 돌봄센터를 활용해 무단 현상변경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궁·능 주변 대규모 개발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조성 및 전승 활성화입니다.

무형유산의 종목별 차별화된 전승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승 취약 종목의 맞춤형 지원, 전승공동체 육성 및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확충하고자 무형유

산 복합문화공간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조성하고 전승자 인정 및 해제 기준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문화재청은 품격 있는 문화유산 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의 3대 축전을 세계적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며 문화유산 방문코스별로 차별화된 지역 대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의 궁궐과 왕릉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고자 다양한 궁궐 체험·활용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발굴 및 수리현장 공개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보장입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공간, 안내판 등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쪽부터 21쪽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미래성장 동력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산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호 및 교육 진흥을 위해 문화유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교육 확대 및 미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입니다.

우리청은 불합리한 규제 혁신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과 객관적·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규제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조사 간소화 및 지원 확대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고도 및 문화유산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도 규제

개선 및 거주 주민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5쪽부터 27쪽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별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성화 하여 역사문화권,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을 지역 재생의 핵심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유산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문화유산 원형데이터 축적, 대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및 콘텐츠 보급·확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보호 강화를 통한 국제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등재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유네스코 등과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세계유산 분야의 선도국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문화유산 홍보 강화, 문화유산의 관광 인프라 구축, 해외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우리청은 인류 공동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 외연 확대를 통해 문화유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전략적 환수를 위하여 소장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국외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현지 홍보 강화를 통해 세계 속 K-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모든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청은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유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청의 문화유산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시상식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를 통해 박춘섭 사무총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이것까지 다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첫 번째 돌 때 추가 시간 없이 7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보충질의 때 시간을 제가 조금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홍익표**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일하는 국회법이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지 벌써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상임위의 의무운영규칙을 국회법에 정했지만 문체위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초기부터 계류된 법안들은 쌓여 있는데 법안 발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통과가 쉬운 법 그리고 황당하게도 한 달 전에 발의된 법안이 유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현안질의는 어떻습니까? 전체회의가 열려도 현안질의는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안질을 눈치보면서 해야 되는 상임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는 국회법은 왜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저희 제2법안소위가 개최되었는데 장애인지원법, 장애인진흥법에 관련된 질의를 정부에게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체육과장 공모중으로 공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문체부는 국장님이나 다른 실무자라도 참석시켜서 답을 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를 적극적으로 열지 않으니 중요한 현안에서도 문체부가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일하는 국회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홍익표 임오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국회법이 정한 소위 개최 그리고 전체회의 일정을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우선 순서에 따라 하는데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마 간사 위원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부처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데 담당관이 부재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법안 처리에 대하는 입장에서 매우 부주의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담당관이 꼭 출석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유정주입니다.

최근 말이 많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개방에 관한 건데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개방한 지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작년 3월에 이렇게 말했지요.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서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 그리고 상춘재를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참 하셨습니다. 청와대 활용 로드맵을 세웠고 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프리미엄 전시공간으로 꾸미겠다 또 청와대 아트 콤플렉스를 만들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대통령 신년보고에서 말이 싹 바뀌었어. 기존에 강조했던 프리미엄 전시공간이 아니라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통령실 산하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합니다.

장관님, 청와대 활용의 방향성이 바뀐 이유가 뭔지 뒤에 얘기해 주시고요. 작년 1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잦아진 청와대 사용 때문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겠고요.

그러한 평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 간에?

장관님, 그러한 평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일부에서……

○유정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잦아진 청와대 사용 때문에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바뀌지 않았습다.

○유정주 위원 국민에게 모두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습다.

○유정주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자문단의 로드맵 발표는 맨날 나온다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체부도, 문화재청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 활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청와대를 방문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게 누구겠습니까, 국민들이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공간을 사용하면 그날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해당 구역의 관람이 제한되고 또 언제는 방문할 수 있고 이게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5일에 청와대 일원 사용을 시작으로 최근까지—12월 13일 기준입니다—23회에 걸쳐서 청와대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청와대 재사용으로 청와대의 모든 것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참 무색해진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 청와대 공연과 전시 예산으로 올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올 한 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주 위원 예,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미술 또 음악……

○유정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까. 100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그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2023년도 청와대 활용 상세계획안을 요청했어. 그런데 문체부가 딱 한 줄 답변을 보냈더라고. ‘2023년 청와대 활용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억 원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검토 중이야……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청와대 활용을 위해서 문체부에 임시조직으로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까지 신설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그런데 공연 담당은 2명인데 비해서 전시를 하는 담당은 학예연구사 3명을 포함해서 5명이나 되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시와 관련된 계획은 현재 방향성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요.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방향성이 세워졌다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장관님, 청와대 활용 방안을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대표로……

○유정주 위원 아니면 용산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유정주 위원 특히 이 청와대 전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것은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유정주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 재산이 용산 대통령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문체부가 다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사후에 협의를 합니다.

○유정주 위원 그러니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유정주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협의는 사전적인 협의가 있고 사후에 하는 협의도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헛갈립니다.

장관님, 협의를 하신다면 전시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실 어느 조직의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 중입니까? 협의는 한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는데……

○유정주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협의를 하든 사전에 협의를 하든 대화는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사후에 협의를 하면 대통령실의……

○**유정주 위원**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 중이
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청와대 재산을 관
리비서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서
관실에 이런 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정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조금 예민한 질
문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전 직원들이 대통
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과
협의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협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체부가 주도적으
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물론 중심이 되어서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협의하냐고요,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협의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유정주 위원**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안 합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문체부에 확인한 거랑 지금
다른 말씀 하십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고요.

청와대 내 이 전시를 위해서 36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받고 또 이를 위해 새로운 과도 신설을
했는데 전시 세부 계획도, 방향성도 세우지 못하
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은 보여요, 아니라고 하시
지만. 그래서 앞서 제 질의가 끝나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면 이것도 사
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하시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말씀하
신 대로 추가질의하세요.

○**유정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면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 대답
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관리·운영·전시·활용 방안은 지난

해 7월 문체부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지
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구상과 지시대로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관리·운
영·전시·활용을 계획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문
화재정, 대통령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
고, 민간의 전문가 고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
행해 왔으며 이런 틀이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앞
으로도 유지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 베르사유 궁
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얘기한 건
베르사유 궁전처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정주 위원** 베르사유 궁전처럼, 그 얘기 이
제 그만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아니, 방향성 말
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립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를 한
다는 그런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면서 가고’라고 지
금 답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장관님께서
저한테 답변하는 것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것은 대통령실
의 관리비서관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위원장 홍익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의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오후 질의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대통령 관리비서
관실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후
에.

○**유정주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우리가 전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후에 그걸 갖다가, 청와대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
령 관리비서관실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전달하
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과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관입니다. 특히 한류문화라든지 문화재, 세계유산 등 우리 문체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분담금 세계 순위가 8위입니다. 자발적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상일 정도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목소리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내는데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서 각국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어젠다를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인력의 육성과 예산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 종교제의유산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냈던 이해은 교수님과 무형유산심사기구 의장을 했던 박상미 대사가 있습니다. 소위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은퇴를 하면 인맥이 단절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국제적인 위원회 조직에서 인맥은 곧 경쟁력이자 영향력입니다. 인접 국가의 사례를 보면 전략적인 지원과 전문인력의 육성으로 복수의 인원이 함께 활동하는 등 관계의 지속성과 회원국 상호간의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유네스코에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유네스코에서 한국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부·교육부와 협력을 하고,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K-컬처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 그것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 전통문화를 발굴해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에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관련한 국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관련 사무국, 유네스코 회원국 또 각국의 문화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협의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헌 위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예산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 드려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유네스코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니까요.

문화재청 쪽도 마찬가지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은 아니지만 2023년 11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아마 위원국으로 선출이 된다면 보다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와 교육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후진 양성을 못 합니다.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돈을 많이 내면서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후진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 문화재관람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은 갑자기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정치적으로 큰 관심사항이 되어서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문화재관람료를 지원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을 다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불교계에서는 당연히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서는 정말 시원하게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싹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년에 정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문화재관람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찰별로 관람인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관람료도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율적인 집행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획재정부나 민간, 조계종 부분과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부담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우선 저는 어느 정도나 정수가 되고 또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인지 그 규모를 물어봤는데 지방비 문제를 말씀하시네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419억 원……

○이개호 위원 그런 정도 될 것으로, 용역비를 포함하면 약 421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지방비 부담 30%를 시킨다는 것은 기재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원래 예산의 책정은 기재부에서 마지막…… 지난번 예산 작년도에 협의가 된 부분이고 저희들 의견보다는 기재부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의 주장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30% 정도 지방비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지자체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그동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사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불교계에서는 지자체 부담 30%를 시키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던 지자체 지원사업들이 말하자면 결국은 지자체 부담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찬장 밑에서 숟가락 चु는 식으로 결국은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문화재관람료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금액으로 뒤바뀐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문화재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도 하고 강력하게 또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대선 때 약속해 놓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자체에 떠넘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추진 방식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하고 또 이 지원을 받는 집행부서, 즉 총무원과의 협의를 저희가 3자 같이 모여서 지금 벌써 2회 이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또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그건 당연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불교계에서? 강력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장관님 소관인지 문화재청장님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템플스테이 관련해서 전기요금 문제는 어디 소관인가요? 문체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개호 위원 여러 관광 상품 중에서 가장 성공한 관광 상품, 그건 시대 조류에도 적합하고 해서 템플스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템플스테이가 꽤 되기는 했습니다라는 OECD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문화관광 상품 다섯 가지를 선정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도 들어갔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연인원 약 30만 명 정도가 템플스테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템플스테이를 시행하는 사찰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느닷없는 전기요금 폭탄이 터져서 이 전기요금 폭탄을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사찰이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사찰이 3개 있습니다. 영광의 불갑사 또 담양의 용흥사 그리고 장성의 백양사, 이렇게 조계종 사찰만 하더라도 3개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하는데요. 그 사찰에 월평균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이삼백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좋은데 그에 따르는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해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요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전기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실제로는 템플스테이가 문화관광 내지는 교육용까지 같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체제로 유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통사찰 지원에 따르는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 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 오고 있는데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템플스테이는 K-관광의 성공적인 또 매력적인 상품이면서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 전통사찰에서 전깃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 전기요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유사 시설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사찰에 폭탄이 터져서야 되겠습니까? 전기요금 폭탄 터졌다고 지금 하소연인데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스테이사업 담당을 종무담당관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종무실과 저희 관광국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이것은 종교적 측면보다는 문화관광산업 차원에서 다루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장관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문체부가 약자 프렌들리 부처임을 강조하신 바 있고요. 또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도 증액이 잘 됐고. 그래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과 다양성 존중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관님과 또 문체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체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문제입니다. 기존 장애인도서관이 다른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쓰고 있기도 하고 노후화도 됐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를 떠나서 지난 정부부터 즉, 또 초당적인 협력 아래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행히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에 호응해서 독립 청사 연구용역 예산도 증액이 잘 됐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국정과제이자 염원임에도 지연되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부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문체부 담당 부처랑 도서관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지 검토에서 용산가족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등 있는데 용적률도 나오지가 않고 또 다양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여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차선책으로 서울 내 폐교 부지를 알아 봤다고 리스트를 보여 주셨는데 대부분 도시 외곽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2027년 이전 예정인 동작구 기상청 부지가 있더라고요. 교통 아주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기재부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활용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부지 확보가 다른 정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나 장애인도서관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야말로 장관님께서 직접 기재부장관님 등과 협의를

해서 해결에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도서관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지만 장관님의 노력으로, 또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독립 청사 건립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김예지 위원 이게 부지 선정이 중요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서울숲이라든지 용산가족공원, 보라매공원이 접근성이라든지 법정 건폐율 그런 문제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과 도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부지를 다시 찾고 있는데……

○김예지 위원 제가 제안드린 기상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기상청,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측과…… 이것은 서울시 또 정부 기재부하고 과기처 이런 쪽과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 독립 청사 건립의 삽이, 부지의 계획과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점은 약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3월 28일 날 제가 지난번 발의해서 통과됐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3월 28일이에요. 이제 곧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다양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시행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창작물 우선구매가 이루어지기에는 행정적인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행령에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을 적용받는 국회, 국회도 적용받고 법원도 적용받습니다. 이게 다양한 기관인데요. 모든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홍보대안, 홍보대책 마련에 대한 것도 시행령에 들

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하고 또 장애예술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챙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 구매 실적을 그냥 두시면 아무도 독려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개하고 모범사례 홍보하는, 저희가 별책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오히려 잘한 부분을, 제가 문체부를 칭찬해 드리듯이 잘하는 부분을 모범사례라고 해서 홍보하고 안정적인 우선구매 생태계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몇 가지 많은데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법률이 안정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최선을 다, 물론 해 주시겠지만 해 주시고 또 법률이 시행되는 3월 28일 이전에 담당 부서나 기관을 통해서 행정적 준비사항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홍보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저희들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 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냥 홍보만 하시지 말고 잘한 기관은 칭찬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기관도 독려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다 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마무리하시면 제가 좀 마이크 넣어 드릴 테니까……

○김예지 위원 마무리는 아니고 다른 내용이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장관님 요새 근무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지요? 업무 가짓수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장관님은 큰 방향, 큰 일만 챙기시고 세부적인 것은 실국장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장관님도 시간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전체적으로 원팀이 되어서 문체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감사합니다.

○이병훈 위원 오늘 보고서 보니까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 K-컬처가 대중문화 여러 분야 있는데 장르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대될 소지가 있는데 이 예술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인 K-컬처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책 첫 번째가 세종학당 문제.

세종학당을 얼마 전에 김승수 위원이랑 같이 공동 세미나도 하고 여러 여야 의원들 와서 했는데 정말 세종학당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실태를 보시고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잘 되어 왔던 게 세종학당입니다. 이것 지원을 활성화, 확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예술종합학교예요. 예종 보니까 여기의 예술·기술융합하고 한예종과 기업·공과대학 협업사업을 통한 예술의 영역 확장, 이 업무 방향이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K-콘텐츠라는 것은 어차피 인문학과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하는 융복합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는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차제에 한예종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임윤찬 아시잖아요. 임윤찬 피아니스트라든가 박세은 발레리나라든가 또 ‘기생충’에 나왔던 이선균·박소담 배우라든가 또 ‘미나리’의 한예리 배우, 다 한예종 출신이예요. 나는 한예종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

(홍익표 위원장, 김운덕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 한 20년간 자료를 봤더니 음악경연대회도 입상자가 43인, 64%가 한예종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예종이 처음에 나왔을 때요 문화부에서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가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중심이라고 했던 겁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그 당시 잘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선 출범을 시키자 해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업역이 넓어졌어요.

임윤찬도 보니까 단테의 ‘서곡’을 세 번이나 읽었습니다. 피아노를 그냥 기술로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이해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종상 화가도 불교철학박사를 한다든가 조재혁 피아니스트도 박사학위더라고요.

지금 한예종의 석·박사 이것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우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하고……

한전공대를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일반 대학에서, 공과대학에서 ‘학생 수도 줄어 드는데 뭘 한전공대’ 하는데 이건 전혀 차별화된 것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원의 석·박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예종이 제대로……

석·박사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반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진보집단이야. 저기 안 돼’ 막 이래 갖고 여론조성하고 다니는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지요. K-컬처를 제대로 키우고 문화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방향을 잘 잡아 주세요. 한쪽에 쏠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바다이야기’ 사태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병훈 위원 2007년에 그래서 사감위가 나왔어요. 게임물등급위원회도 탄생의 동기가 ‘바다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도박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홀덤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대단히 좋은……

건전 홀덤팝이 한 10% 될 겁니다. 90%가 지금 불법으로 도박장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할 법안이 없어서 제가 법안도 사감위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내놔는데, 사실은 홀덤이, 오바마도 합니다. 오바마도 홀덤을 해요. 네이마르라고 유명한 브라질 축구선수 있지요, 여기도 홀덤을 해요. 이게 건전……

이 홀덤은 게임이라기보다는 스포츠로, 마인드 스포츠로 지금 외국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최초로 카드게임 브리지가 종목으로 채택됐거든요. 또 홀덤이 2028년 LA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됐어요. 그래서 홀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황 파악을 제대로, 밑에 실무진을 시켜서 시장 실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되면 ‘바다이야기’ 처럼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규제는 하되 건전한 것은 장려를 하고, 불법을 하면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감위 법안으로 제가 국감 때도 했는데 법안은 빨리 발의한 것이 통과되면, 미리 준비를 해서 건전한 육성, 불법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이병훈 위원 문화재위원 임기가 곧 종료되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2년간의 직에서 종료됩니다.

○이병훈 위원 문화재위원들이, 정말 그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국민들 삶에 직결되는데 문화재 위원들의 결정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또 한 축으로는 문화재위원이 아니면 보존이 안 되는 양날의 칼인데 새로 구성할 때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현재 문화재위원 중 수도권이 45명으로 전체의 45%가 넘습디다. 지역 간 균형이 있잖아요, 이것도 잘 봐 주세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이병훈 위원 분야별 균형, 지역 간 균형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법안이 된 것이, 근대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됐잖아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이병훈 위원 이게 통과되면 그 수요에 맞는 문화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지역 안배를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평가지표 같은 걸 참고해서 지역 안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래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운덕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장관님과 문체부 소속 기관장님들, 마스크 벗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결의안을 이렇게 내 주셔서 저희가 국회에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유네스코에 공식 서한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안민석 의원이 재발의한 그 내용 중에 일본이 유네스코에 했던 2014년의 약속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강력하게 제재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제가 보냈고, 2020년 9월에 유네스코에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겠다고 약속을 해서 21년 7월에 일본 군함도 등 그런 역사왜곡에 관한 것을 제재하겠다는 결의문을 유네스코가 만장일치로 채택·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국회에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이상임위에서 다 같이 제가 대표발의해서 일본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로 올렸고 본회의에서도 역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거든요. 본 의원실에서도 유네스코에 직접 같이 연락을 하면서 이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 유네스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이런 부분들, 안민석 의원님이 오늘 대표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것을 놓치지 않고 문체부에서 챙겨 주셨으면, 정부부처 차원에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것 좀 자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패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이름에는 지금 제가 들어 있어서 쑥스러우니까 좀 가릴게요.

사실은 문체위원들 전부 받으셔야 되는 감사패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2021년도에 제가 미국 LA에 있는 홍사단 단소가 중국 개발사에 의해서 철거 위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국회 차원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함께 경주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오늘 자리에 안 계신데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홍사단 울산지부에서 40년째 활동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서 1월 31일자로 최초로 해외에 있는 우리 유산을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이것을 매입하고 지켜낸 아주 소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노력들을, 사실은 제가 보훈처에서 대표로 이렇게 감사패를 받기는 했지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문체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공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이라서 자랑하고 싶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지키려는 노력들을 특히 문체부에서는 철저하게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장관님께서 오늘 주신 주요 업무사항에도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2020년 세계 웰니스관광의 시장 규모가 560조, 제가 이 웰니스 부문에는 참 관심이 많아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20대 국정과제에 이 웰니스관광 분야가 들어서 바로 정부부처와 소통을 하면서 연구를 해오고 지금 법안을 성안해 가는 과정이기는 한데요. 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웰니스관광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장관님,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코로나 시기에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특

히 55개소의 추천 웰니스관광지를 선정·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지자체와 함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계획에 보니까 총 3조를 들여서 2023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를 전국에 만들겠다, 아까 그 내용이 이렇게 있던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웰니스 육성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관광공사 차원에서 2017년도에 전국 현황을 조사한 것 이외에는 사실은 그 이상을 이후에 정부가 잘 따라오면서 이 자산을 쌓으려는 노력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자 국내에서 국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 관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각국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관광공사와 문체부에도 지금은 우리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 SOC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청, 산림청 등 각 부처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산만하게 웰니스라는 이름을 달아서 관광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저는 문체부가 이것을 차제에는 좀 이렇게…… 아까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짜셨던데요. 소규모 단위의 무슨 거리에 청년들이 가서 함께하는 무슨 관광 이벤트 이런 것 말고 진짜 큰, 지역과 어떤 마을 단위의 큼직큼직한 깎두기 썰 듯이 웰니스관광의 컨트롤타워가 문체부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획을 혹시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웰니스관광은 K-관광의 새로운 도전과제고 저희들이 지평을 열 수 있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어 갖고 코로나19가 끝난 올해 이 웰니스관광을 확장하기 위해서, 불교 말씀을 아까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 관광도 웰니스관광에 포함을 시키고 여러 분야의,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처의 웰니스관광 요소를 묶어서 이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전국 팔도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

로는 지자체, 광역단체별로 해서…… 도시별 특성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천혜 자원도 다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도시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웰니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앉아서 섰또 의료 관광, 어떤 힐링 이것을 벗어나서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연계 관광의 그런 형태로 짜임새 있게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바다를 하면서 또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또 함께 정신적인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문체부에서 잘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관광공사도 문체부가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면 잘 단속해서 다른 부처와 협업이 원활하게 될지가 제가 그게 궁금한데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존경하는 위원님의 아이디어하고 비전을 제가 저희 웰니스관광 확장 정책 속에 짜임새 있게 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실천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고 그 분야에 저희들이 힘을 쏟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이 관련 제정법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성안해서 완료할 예정인데요. 문체부 차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를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박보균 장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다음주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 요구서의 범죄혐의 내용을 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 FC 의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성남FC 의혹은 제가 그동안에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혜성 후원과 관련해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또 기업들의 후원금 165억 원은 성남시 인허가 특혜로 연결되었다 또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개별적 접촉이 있었다, 저희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그대로 범죄 혐의 내용으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 문건, 회의 자료, 이메일 등 객관적 물적 증거자료를 보면 인허가권을 매개로 장기간 특혜 시비로 해결되지 않던 기업들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총 133억 5000만 원을 공여했다, 이게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FC에 40억을 후원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후원 과정을 보면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성남시에 민원 이행 문서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이것 성남시가 안 들어 주니까 성남FC에 후원금을 쪼개기로 분납했습니다. 그때그때 보면 인허가 조치가 이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치적 쌓기와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업자, 기업체들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편의를 받는……

왜 마이크를 끄십니까, 발언 시간엔?

○임오경 위원 질의의 취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질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임오경 위원 질의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데 질문을 막는 게 아니라고……

○김승수 위원 그러면……

○임오경 위원 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장관님한테 제 질의를 하는 중이고요.

○임오경 위원 예, 그러면 위원님 끝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막지 마십시오.

○김승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김승수 위원** 왜 그러십니까? 왜 마음대로 진행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십니까?

○**황보승희 위원** 아니, 질의는 위원 본연의 권한인데 마이크를 끄고 그러시면 됩니까?

○**김승수 위원**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빨리 마이크 켜세요. 왜 그러십니까?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간에 이러시는 건 아니지요.

○**김승수 위원** 질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황보승희 위원** 아니,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또 질의하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 하셔서 하시면 되지……

○**김승수 위원** 아니, 질의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회의 석상에서?

○**배현진 위원** 질의 중간에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저희가 여야 간에 불편해도 다 듣고 말씀을 나누시는 건데요.

○**위원장대리 김윤덕**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체위 회의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절제하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위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것은 스포츠구단이 단체장의 전횡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황보승희 위원** 아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합니까? 국민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김승수 위원** 아니, 내용을 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배현진 위원** 아니, 질의도 끝까지 안 듣고 이재명 당대표 성함 나왔다고 그냥 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성남FC 사건이 지금 불법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황보승희 위원** 아니, 불법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임오경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셨느냐고요, 성남FC 사건이 불법인지?

광고·홍보가 이게 불법입니까?

○**배현진 위원** 아니, 당대표 성함 나왔다고 그냥 내용 끝까지 안 듣고 그냥 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질의하시는 위원님한테 이것 어떻게 지금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황보승희 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질의하는데 마이크를 끄다니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중단해 달라고 요구도 안 하고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끄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승수 위원** 아니,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고 이렇게 함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마이크를 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윤덕**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김윤덕**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발언 도중에 위원장께서 발언을 중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끈 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발언, 질의가 우리 문체위에서 꼭 못 할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은 누구에 의해서도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국회 차원에서 사실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하고요. 또 발언 도중에 이게 중단이 됐는데 나머지 발언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병훈 위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국회법 말씀하셨습니다요. 국회법에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도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발언 도중에 제가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인 이용호 위원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는 말씀 올리구요.

다만 지금까지 여야 간사들 합의 사항에 따라서 매우 정치적인 성격의 발언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수개월 동안 노력해 왔고 또 그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문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온 성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잘 유지하고 또 문체위가 그 본연의 업무에 맞게 원활하게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과와 함께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요.

계속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매우 악의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문체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또한 같이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보승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예.

○**황보승희 위원** 위원의 발언 도중에 아무리 사회권을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이라고 하셔도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는데 사과를 하시는 말미에 위원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악의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지금 김승수 위원님 하신 발언이 의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도 그거는 위원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그 키워드가. 다만 야당의 당대표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저희 업무와 관련 있는 성남FC 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응당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

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하시는 건 좋은데 그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는 유감이 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이게 할 발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 사회권을 가지신 분이래 해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대리 김윤덕**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그간 먼저 우리 문체위가 정정보다는 정책과 현안에 집중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상임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 제기로 인해서 전체회의가 정회된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과연 기업의 후원이 없이 스포츠 리그나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기업의 스포츠 후원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문체부가 이런 불법행위들을 장려하고 조장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의 후원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스포츠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체위에 대한 것 발언하기도 바쁜 시간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의한 질의를 하기도 바쁜 시간에 정치적인 논쟁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하고는 상이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질의 시간에 어떠한 질의를 해도 가능한 하겠지만 정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임오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지금 업무 질의도 바빠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 거대 야당 당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맞대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과거 경남지사였다라면, 아마 당시 경남지사가 이재명 대표였다라면 이미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기소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반 공갈 협박하다시피 해 20억 원 정도 스폰을 얻어왔다’라고 밝힌 것은 당시에 윤한홍 행정부시장, 경남FC 주중에서도 한국화이바 이재희 부회장을 재정이사로 선임한 지 이틀 뒤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사업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남FC도, 인천FC도 계속해서 후원을 받고 있고요. 미술전시회, 콘서트, 기업 후원 다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메세나 알고 있지요? 문화예술에서……

○이용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기업에서 후원해 주는 거 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위원장대리 김윤덕 막을까요?

○이용 위원 예.

○임오경 위원 아니요, 저 지금 계속 말을……

○임종성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한테 하고 있잖아.

○위원장대리 김윤덕 임오경 위원님, 발언 좀 자제해서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아니, 이게 불법이라면 전체 다 똑같은 잣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만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용 위원 이러면 계속 정쟁이 심해져 가지고……

○임오경 위원 예, 정쟁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술만 가지고 억울한 누명인지 이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성남FC 사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읊고 계시는 위원님을 볼 때 이걸 누가 지금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용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 보시지요.

○임오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쟁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자중을 서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용 위원 자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저는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 앞서 제 발언을 갑자기 도중에 중단시킨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

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예단해 가지고 업무보고와 관계없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추후에 할 이야기까지 그렇게 다 가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남FC뿐만 아니고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프로·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성남FC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저번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때나 그때도 보면 뚜렷한 대책이나 관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쪽에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 추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뒤의 얘기는 들어 보지도 않고 문체부하고 관계없다……

지자체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 스포츠단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문체부와 관계없습니까?

○임종성 위원 위원장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거지 왜 위원을 보고 해요?

○황보승희 위원 아니, 하실 말씀만 하세요. 어디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지적하시면 동료 위원들이……

○임종성 위원 원래 위원장 보고 하는 거야, 의사진행발언은.

○김승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전후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 보고 이게 진짜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건지, 문체위 회의와 관계가 없는 건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진짜 전혀 논의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자제 요청이라든지 또 양해 요청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들었을 경우에 뭔가 좀 다른 조치를, 정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자의적으로 질의 내용을 판단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되게, 제가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왜곡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대리 김윤덕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어찌됐든 유

감의 말씀을 하셨고 해서 잘 그냥 정리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끼리 서로 최소한에 대한 예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수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 감정이 상할 만큼 그런 말씀들을 하실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 유감의 말씀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았더라는 아쉬운 말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 질의를 저희가 1분여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말씀하신 스포츠, 체육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미리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야 모든 위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임위원장이 무슨 대학가 세종대왕 게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기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다 질의하실 수 있고, 2022년 10월 24일 연합뉴스 8시 24분 그 기사를 보면 당시 국감에 관해서 이 정쟁에 관한 뉴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당연히 체육 관련…… 제가 이 제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아마 멀미나니까 그만 좀 태워 주십사 부탁을 했던 그 관련 뉴스인데, 체육 관련 질의를 하는 중에 그것이 정쟁의 소재라고 위원장께서 딱 정의 내리시는 것 또한 민주적인 국회 운영, 우리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침해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서로 간의 변명이나 말 없이 정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 아까 배현진 위원님 상 받을 때까지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상패를 보고 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저 상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상임위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위주로 가는 게 나쁜 줄이라고 봐요. 물론 정치적 발언이라고 못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상임위보다 그동안 해 왔던 우리 전통이 상당히 정책 중심으로 많이 갔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들 마음속으로 지금 내년 총선도 있고 다 편

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상임위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정말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원하게 그냥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승수 위원님 발언을 조금 하셔야지요, 수위 조절해서 가지고?

아까 벨을 잘못 눌렀지요?

○위원장대리 김윤덕 아닙니다.

○이병훈 위원 끄는 것을 잘못 눌렀지요, 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윤덕 아닙니다.

○이병훈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회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윤덕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발언이 도중에 중단된 것, 마이크를 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 발언이나 여부도 그걸 또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아마 본인이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하시는 것이고요.

아마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더구나 7분 발언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그게 존중됐어야 되는데 하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렇지만 이 문제 때문에 또 사과를 하셨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상임위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의 발언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일단 제가 사과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 말씀 드리고요. 다만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그냥 보장된 시간이기 때문에 본래 어떤 제기된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건 여러 차례 여야 간사 협의에서 확인되고 또 존중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 남은 시간도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면 괜찮은데 상당히 자치단체장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악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일단 구단 자체의 운영도 그렇습시다마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선수들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지적했듯이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단은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스포츠 구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한 감독 수단이 없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성남FC 건은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저희 문체부 소관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을 포함해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모든 종목의 프로스포츠 구단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또 지원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모든 종목의 프로스포츠 단체들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프로스포츠 구단뿐만 아니고 우리가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문체위에서 가장 처음에 현안이 되었던 문제가 고 최숙현 사고였습니다. 그것도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그런 스포츠 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문제점들 또 비리들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는 이런 순수 스포츠인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수단이 사실 아직까지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체육계의 요청 사항이기도 한 만큼 저희 문체부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K-콘텐츠 수출 산업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콘텐츠산업은 다른 모든 산업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과 함께 K-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K-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K-콘텐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이게 매출액도 늘어가고 있는 그 이면에는 불법 유통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창·제작자들이 고통을 받는, 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저작권 침해 사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구체적인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K-컬처의 확장과 더불어서 국내외에 이런 복제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보면 도대체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웹툰에 한정된 피해 규모만 2021년도에 1조 5000억이 넘습니다. 다른, 웹툰이 아닌 영화, 드라마 또 K-팝 여기에서 불법 유통으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문체부에 물으면 문체부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관련 협회에다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련 협회도 또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요.

이렇게 피해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불법 복제물이 훨씬 정교하게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이렇게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을 직접 창·제작자한테 물어보면 실제 지금 문체부나 저작권보호원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적발 건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홍보를 하는데 막상 피해를 당해서 호소하러 가면 그 대응이 너무나 느슨하고 진짜 세월아 네월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버젓이 불법 사이트들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벌써 운영된 지 몇 달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해 제가 지적한 사이트들도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체부 혼자만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러겠습니까마는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쥐고, 장악력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윤덕 간사, 홍익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웹툰, 만화 창, 제작자들과 계속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연석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은 저는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큰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 CP라든지 창·제작자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조차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우리 정부에서는, 문체부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확실하게 저작권 문제는 책임을 진다고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패스트 무비(fast movie)라고 아십니까? 그 짧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전에 말씀하셨지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류호정 위원 그렇지요. 2시간짜리 영화를 이렇게 이삼십 분으로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콘텐츠인데요. 이 콘텐츠를 저도 가끔 보는데 보면서 이게 저작권 문제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곤 했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저희들이 올해 중점점검 역량 강화가 저작권 또 IP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일상 속에서 IP라는 그 세계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패스트 무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지금 침해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으로 저작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제 유튜브가 도둑질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표절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200만 뷰가 나올 만큼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표절물로 돈을 얼마 벌었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하신 분이.

이게 사실 우리 저작권법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102조를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면책요건이 사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도 면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102조 3항을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원에 비해서 영상콘텐츠는 저작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유튜브가 만약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작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부의 저작권국에서는 저작권을 쉽게, 흥미롭게 그리고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짜임새 있게 그런 원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침해하는 쪽에서는 아주 정교하고 교묘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장관님, 저작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확대될 필요도 물론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콘텐츠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기도 하고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무비 등에 대한 이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나 EU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실태조사 또한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 보호에는 침해당한 사람 또 저작권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현장 대화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류호정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제 법안 발의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웹툰 표준계약서 관련인데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조희수 10억 뷰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하셨잖아요. 이번에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초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불공정 계약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작가님들이 많은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초안을 보면 창작자를 보호한다고 들어간 조항들이 창작자와 플랫폼, CP 간 협의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듯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

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소위 MG라고 부르는 작가의 선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한 내용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공정위에서조차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건데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연예인 불공정 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판매관리비(판관비)를 창작자에게 부담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계약서로 공식화된다면 공정위조차 개입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근로계약서나 마찬가지로 텐데 문체부에서 창작자분들, 작가분들을 안 챙기면 또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웹툰, 웹소설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항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여론을 듣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걸 정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이게 오히려 창작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건데 창작자에 대한 뭔가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 계약서가 되면 안 되니까요. 1월에 한번 의견을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창작자들이 내놓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문화재청장님께 짧게 질문드릴 건데요.

문화재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류호정 위원 그런데 여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문화재청의 상황을 보면 문화재청 차원의 전담 부서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문화재 피해 원인 중 호우가 72.7%를 차지할 정도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류호정 위원 그러려면 이제 문화재청에서 종합적인 계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을 해야 하는

데 그러려면 당연히 전담 부서, 전담 인력,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문화재청 내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TF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어서 문화재청이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직과 인원을 저희가 별도로 아직은 추가로 배정받지도 못하고 안전관리대응반이 항상 그런 긴급한 사태라든가 자연재난 때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 임시처방적으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위원 미리미리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류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선출된 권력인 시장이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해야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재량적 행정행위, 적극적 행정을 검찰이 멋대로 재단해서 범죄로 몰아가는 작태를 보며 스포츠 현장의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아마 아마추어 직장운동부도 후원 광고를 현재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고 삼자뇌물죄라고 한다면 후원 광고 저는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지금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투명성과 후원성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스포츠만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진짜 우리 장관님도 심도 있게 걱정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전면 중단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문화예술·스포츠

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국민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 홍보비 후원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울산 전국체전과 지난 14일 진천선수촌에 방문해서 엘리트 스포츠 지원 강화, 인재 양성,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스포츠 현장에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지원 약속까지 하는 행보를 보기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서 하신 말씀들은 저는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에서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약속하셨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스포츠 팀들이 계속해서 해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지금 여기에 위원님이 PT로 띄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나오셨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박춘섭 예, 나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나라 직장운동경기부 팀 해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박춘섭 예, 800개 팀 정도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800개 팀이요?

○위원장 홍익표 시간 멈추고요.

잠깐,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박춘섭 직장운동경기부 금년 2월 현재 741개 팀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전국체전 참가하는 팀 말고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박춘섭 아니, 전체 팀이요, 전체 팀.

○임오경 위원 직장운동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박춘섭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체전이나 전국체전 참석하기 위해서 한두 달 이렇게 결성한 팀을 제외하고 1년간 지속되는 팀 기준으로 금년 2월 기준으로 741개 팀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우리 동계 종목인 아이스하키 팀이 다섯 팀에서 지금

전 팀 다 해체되고 한 팀 남은 것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박춘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아이스하키 팀이 한 팀 남은 것 지금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김해 직장운동부 팀이 6개 종목에서 세 팀 남았습니다. 이것 지자체별로 직장운동부 한 팀 한 팀씩 찾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반쪽 남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박춘섭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들어가서도 됩니다.

정부의 지원 능력이 안 되면 후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성남FC가 받은 광고 후원이 제삼자뇌물제공이라는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수사로 인해 후원은 범죄시되고 스포츠 현장은 초토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스포츠산업 100조 원까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성남FC 건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포츠산업을 2027년까지 100조 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스포츠산업 100조 원 만드는 것 말씀하셨을 때, 관광산업도 2027년까지 몇백억까지 만드신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을 그렇게 방문하셔서 찾아 가셔서 직접 경청하시고 들은 거라면 현재 해체되고 있는 이러한 팀들의 얘기도 한 번 정도는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스포츠 이벤트를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궁금해요.

아까 장관님의 업무보고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를 왜 저는 대회, 경기로만 보고 있는지, 왜 산업으로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스포츠를 관광으로 저는 연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MICE산업도 이벤트, 전시회, 박

람회로 이렇게 연결해서 관광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스포츠도 저는 엄연히 관광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스포츠를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광산업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K-컬처를 관광에 탑재하여 한국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라고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스포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MICE산업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스포츠도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제대회가 계속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수입 300억 달러 달성에 스포츠관광산업도 접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시대는 당연히 스포츠를 관광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 스포츠산업 속에 스포츠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개최지인 강원도는 2050억 원의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지금 여전히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공동조직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선임됐습니다. 그것도 스포츠 레전드를 간판으로 이용만 하는 조직위 구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스포츠인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명성에 걸맞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장관님, 개회식은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 레전드, 어제 두 조직위원장들이 스포츠 레전드에도 경영 마인드가 있다 그런 것을 아마 두 분이 확실하게 보여 줄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개최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24 강원도 청소년동계올림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강릉하고 평창 이런 쪽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오경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 홍익표 추가질의하실래요?

○임오경 위원 1분 하고 추가질의……

○위원장 홍익표 1분 하시고 추가질의로……

마무리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강릉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아닙니다. 강릉·평창 공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강릉하고 평창하고 정선 이렇게 다 있지요.

○임오경 위원 공동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관광산업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개최지가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원화시켜서 방송도 두 군데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창군 측에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2002년 한일월드컵을 보시게 되면 개막식은, 개막 경기는 한국에서 했고 폐막 경기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관광객이 다 모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원화를 한다라고 하면 장관님은 어느 쪽으로 가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일단 개막식에는, 강릉에서 하고요.

○임오경 위원 강릉·평창이 공동 개막을 한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공동인데 개막식 스타디움의 여건 때문에 강릉에서 하고 평창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보 잘못 전달받으셨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어제 제가……

○임오경 위원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아니요, 어제 제가 두 스포츠 레전드를 조직위원장 위촉식에 가서 평창군수하고 만나서 평창의 소외감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

서 의논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님과 다르게, 오늘 보니까 주요 업무계획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일단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가기 전에 뒤를 좀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 계속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요. 2023년 1월에 어떤 스포츠정책의 정상화가 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 가장 문제였던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일수 개선안이 나왔고, 늦었지만 정말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이밖에도 지난 국정감사 때 주문했던 최저학력 기준미달 선수 대회 출전 제한하고 그다음에 운동부 내 장거리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합숙소 운영 허용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일단 제2의 신유빈 사태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도 추가적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

○이용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올 상반기에 또 교육부하고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서 우리가 좀 멀리 있는 선수들도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운동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전통예고 감사 계획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예고 교사들의 수천만 원 금품 수수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어떤 비위 문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예고의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 담당 국에서 지적하신 부분의 대안을 조만간에 내놓을 것입니다.

○이용 위원 국정감사가 끝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요한 현안질의 때 지난 국정감사 때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소관기관이나 부처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국정감사만 끝나면 되겠지. 이 상황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매년 제가 볼 때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물론 앞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되짚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 위원 다음은 저번에 제가 예술인창작지원금사업 지난해 예산 600억으로 총 2만 1000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사후활동보고서 미제출 건이 1500건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미제출자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빠른 시간 안에 내 달라는 것을 독려를 하고 있고 미제출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도도 이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하고 그분들이 활동보고서의 중요성 그리고 거기 활동보고서에 자신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담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네 번째인데요.

김장실 사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여기?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이용 위원 사장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 한국관광공사의 부정 수의계약 의혹 업체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이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공사는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5년 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1475개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약 간 의심이 가는 네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체, 올라야 하는 곳은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용 위원 거기가 여성기업 특례를 악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졌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그렇게 했습니

다.

○이용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밝혀졌는데, 장관님, 이런 수의계약 미비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추적을 해서 시정에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위원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정감사 때 수많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국회의원이라는 게 다 국민들께 모든 민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장관님께 국정질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좀 마무리 짓고, 아니면 마무리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어떤 감사랄지 경찰 고발이나 신고랄지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가 분명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국정감사 때 제가 현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수당 문제 한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을 때 TOP 10, G1 그다음에 G2, G3 이렇게 각 종목별로 많이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TOP 10에 들어가는 G1은 일수가 210일 그다음에 G2는 190일, G3는 150일입니다.

그런데 150일 하루에 8만 원이면 한 달 평균 얼마나 될까요, 장관님?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 금액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가대표선수 예우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

로 땀과 열정을 쏟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것을 저도 알고 이것을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높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음주운전·금품수수에도 재취업, 문체부는 모르쇠’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사건에 연루된 문체부 공무원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 그다음에 금품 향응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020년 이렇게 징계를 받은, 1년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년 1년을 앞두고 문체부 예산 유관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무처장으로 임기 3년을 재취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심각성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포함해서 올해 다시 한번 지난해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서 따져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임기를 맡은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작정입니다.

○이용 위원 앞으로 미비된 점에 있어서 저 또한 다음 현안질의 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우리가 뒤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아까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3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떠세요? 혹시 잠시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장관님? 아까 잠깐 정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도 괜찮으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괜찮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경기 광주시을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만큼 그간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종성 위원 그런데 올해 문체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적힌 추진 실적과 평가를 보면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고 자화자찬만 가득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청와대를 두고는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 자연유산, 전통문화재가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런 청와대 개방 성과가 최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대 주요 성과에서는 빠져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자 시그니처 사업인데도 빠진 것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문체부와 달리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현실과도 좀 차이가 있는데 청와대 개방 이후에 57만 명에 육박하던 관람객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영빈관과 상춘재 등을 재활용하느라 정작 청와대를 찾아온 관람객들은 반쪽짜리 관람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과연 개방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처럼 국민들은 청와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겠다던 문체부, 물론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찾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비유법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활용 방안만을 기다리느라 지금까지 아무런 전시나 공연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로드맵이 늦어진다면 올해 전시는 물론이고 또 청와대 활용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청와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대통령 역사, 자연수목원, 전통문화재가 담긴 의미 있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람률이 다소 떨어진 이유는 시각적인 관람 위주로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더 전시라든지 음악회, 문학 그런 활동을 많이 넣어 갖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청와대 관람 이미지를 바꿔서, 그런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해의 청와대 전시 그런 것을……

○임종성 위원 장관님, 그러면 올해 1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 마무리된 그 시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아니, 원래 지난해에 준비해서 가지고 올해 벌써 끝나야지요,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잡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의논하셔서 올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청와대 관람이 됐든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공간이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문체부 수장으로서 이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었으니까, 아까 했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스포츠가 과연 기업의 후원이 없이 스포츠리그나 산업이 존립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된 FC 축구단하고 별도로 스포츠는 국민과 함께하고 또 스포츠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 조화 속에서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고 스포츠�관광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 조화를 잘 엮어 주고 함께 할 수 있게끔 스포츠들이 국민들 사랑을 받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문체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체부도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에서 장관 표창까지 하면서 후원을 독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요?

조용만 차관님,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에서 ‘후원은 국내 스포츠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하셨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종성 위원 이런 기업의 스포츠 후원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문체부도 이런 불법행위를 사실은 눈감아 주고 또 장려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업들이 스포츠에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할 수 있는지 활성화 방안들을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 유치했지 않습니까요? 과연 왜 월드컵을 유치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카타르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종성 위원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대한민국도 스포츠산업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또 후원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정부의 인식 전환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요?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만이 세계 스포츠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경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함께 즐길 수 있고 그게 관광으로 스포츠가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포츠클럽을 거기에 같이 엮어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스포츠관광 발전을 기하자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임종성 위원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체위원으로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더…… 미래 먹거리가 사실은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에서 얼마든지 미래 먹거리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체부가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반갑습니다.

가장 부산다운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굉장히 바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팬참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특히 문화·체육·관광 쪽이 소속기관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전국에 두루두루 지방시대에 맞춰서 살펴보시느라 굉장히 업무 피로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2023년도 확정된 문체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몇 프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약간……

○황보승희 위원 1.06%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맞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과거 1.2%까지 갔다가 그게 또 줄어서 1.06%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황보승희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K-콘텐츠가 연평균 매출 5%, 수출 9%로 급성장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콘텐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고, 과거 정부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새 정부에 들어서 국가 예산에서 문체부 예산이 적어도 우리가 목표로 단기적으로 2%를 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문체부장관님께서 행사 다니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신규 사업들, 민간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우리 콘텐츠를 세계에 더 알리고 또 관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좋은 신규 사업들을 지금 이 시기에, 올해 연초에 잘 발굴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문체부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문체부장관님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맞습니다. 지금 문체부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비욘드 컨덕터(beyond conductor)라고 그러니까, 배후에서 지원하는 게 문체부 역할인데. 124억 달러…… 2021년의 경우 TV나 냉장고, 가전제품보다 30억 달러 이상 많이 수출한 K-콘텐츠를 지원해 주고 하는 문체부가 저는 디스카운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스카운트된 문체부를 수치로 나타낸 게 바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 측면에서 전 세계의 K-컬처…… 이 K 자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K가 요술 지팡이다, K가 마력의 지팡이다. 지금 K라는 단어를 붙이면 전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장르나 분야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K-예능까지 들어가고 K-편의점 이런 것들, K자만 붙이면 전 세계인들에 무언가 좋고 무언가 흥미롭고 무언가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K-컬처의 위상을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분야에, 제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 예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힘을 보태야 될 부분이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일에 장관님뿐만 아니라 문체부 공무원들 모두가 국가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2023년 1월 11일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 사용에 대해서 사업 731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황보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감사를 보면서 사전에 제도개선 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부처별로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행규칙이 다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제7조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시행규칙에 보면 제7조가 2005년도부터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이유를 여쭙보니까 ‘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삭제를 했다’ 하는데 전 부처에 다 있는 조항을 왜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시행령에서만 삭제했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총 1295개, 문화재청이 354개로 타 부처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7조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을 시행한 건수는 문체부 소관 19건, 문화재청 소관 1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고발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거나 법인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조정도 하시겠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감시·감독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삭제된 제7조 규정을 다시 살려서 매해 상시적으로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인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문체부 실·국장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제7조 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1분 더 할까요?

○위원장 홍익표 1분 드릴까요?

○황보승희 위원 예.

영진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진위에서 올해 지역영화 예산사업 일부 통합하면서 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2022년도까지 6억이었고요. 지역영화 교육허브 운영지원이 2억이었는데, 6억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만 쓸 수 있었고 나머지 2억은 서울지역에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지금 통합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영진위 내 위원회의 정기 회의록을 보면 지역에 대해 쿼터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 합치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통합을 하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지방영화문화 저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지금 영화 관련해서도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 또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영화산업을 특성화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고요.

이번에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도 14억이 늘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립예술영화 제작도 예산이 증가했고, 애니메이션 종합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지역쿼터제를 뒀다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사업들이 지역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나누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체부장관님, 이 지역쿼터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꼭 좀 챙겨 주시고.

아까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황보승희 위원 특성화된 지역의 문화콘텐츠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유물도 발견됐잖아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전재수 위원 청와대 여덟 군데에서 유물까지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도자기편은 생활유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와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에서 간혹씩 나오는 건데 그만큼 경복궁의 후원에 해당이 되는 청와대에 대한 것이 아마 그동안은 조사 안 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때 육안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지요. 성벽에 글자를 새긴 돌도 일부……

○문화재청장 최응천 각석도 일부 나왔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지요.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연구 결과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 어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일단 일반 현황하고 역사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실었고요. 변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사실은 70년 가까이 그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초적인 조사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비춰본다면 청와대가 너무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개방이 되고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경복궁도 현재는 아시다시피 일반관람이 이루어지면서 권역별로 조금 부분적인 발굴과 거기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 청장님,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은 하고 있습니까? 자문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 부분은 우리 문체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장관님, 지금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일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일단 관리·활용 자문단은 저희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 용

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일단 업무는 다……

○전재수 위원 지금 올 스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22년 8월 이후로 스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2022년 8월부터?

○전재수 위원 8월 이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아니지요. 그 활용자문단은 계속 활동을 해 가지고 연말 정도쯤에서……

○전재수 위원 자문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연말 정도에 주요 활동은 대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것은 제가 다 끝났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주요 활동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에서 구체적인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건 거기서 발표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체부가 주도하고 중심이 되어서 활용·관리·전시하는 그런 진행 과정하고 비슷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 문화재청장님,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본다면 유물이 발견됐으면 지표조사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렇지요. 육안으로다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전재수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지표조사하고……

○문화재청장 최응천 지표조사라는 것은 간단한 이러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탐방로, 관람로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물이 발견됐다 그러면 지표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면 발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필요한 경우는 합니다만……

○전재수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것은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 이것이 훼손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경우로 그것하고 다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데 청와대에서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정밀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잘 안 나오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문화재청 말씀……

○**전재수 위원** 예, 청장님.

○**문화재청장 최응천** 계획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안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사계획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한 전체적인……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굴조사 같은 경우는 지형이 변형되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형 변형이 필요가 없는 정밀지표조사를 우선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밀지표조사는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 단계는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와대의 복합적인 활용방안과 함께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요.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나왔으면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꼭 하면 되는데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꼭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격한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저희가 발굴이나 시굴을 합시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그동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본다면 그에 맞춰서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문

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된 주무 기관으로서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 없이 꼭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계획도 지금 제대로 못 가지고 있고 너무 청와대 활용 자문단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는 건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 역사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활용과 개방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은 고유의 이러한 역사성을 갖다가 다시 찾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대국민에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재수 위원** 청장님, 일단 청와대가 충분한 준비를 거치고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들의 동의 절차와 그러한 장치를 거치고서 청와대 이전을 하고 국민들께 개방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게 개방이 됨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그 전 같으면……

○**전재수 위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청와대 이전이 된 겁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 것은 저희들이 꼭 봤고,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인 문화재청의 업무 프로세스로 꼭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문화재청의 공무원분들이 자신의 업무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심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와대 권역에 대한 지표조사 또 발굴조사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것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위원님, 그 문화유산은 지표조사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

호수를 전부 조사를 해서 노거수군을 천연기념물로 이미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도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에 있는 지표조사만 통해서 문화재청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홍익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사실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인바운드·아웃바운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전자여행허가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민원 있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 제도가 언제 시행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전자여행허가제가 202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2년 전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전자라는 말만 붙었지 여행허가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각계의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하고 관광을 경쟁하는 경쟁국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나 대만, 베트남, 태국 여기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실시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전자여행 K-ETA는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사실은 아시아권의 여행 경쟁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대만, 베트남, 태국 등에는 이 전자여행허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아시아 국가

에는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미국 갈 때……

○이용호 위원 미국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한번 보시지요.

한국은 지금 시행 대상 국가가 112개국입니다, 112개국.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있는데 결과 통보 시간도 우리는 4시간이고 대부분은 수분 이내, 즉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서 인바운드 여행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단계인 걸로……

○이용호 위원 원래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것은……

법무부가 사실 주무부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비자 하는 외교부하고.

법무부 쪽에서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양 측면이 있어서 불법체류만을 보면 이것 실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광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또 완화된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행업계가 작년 10월에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이것 폐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100명의 단체관광객이 기업 인센티브로 한국 여행을 추진하다가 국내 입국에 필수적인 전자여행허가 신청에서 무려 20명이 불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일본으로 바꿨습니다. 또 최근 한 가족 중에 어머니와 딸은 허가가 났는데 아버지는 불허가 난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이것을 굉장히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것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법무부도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해서 단기·장기로 나눠서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시작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112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숫자를 최소한 더 줄여야 되겠다.

봐서 불법체류가 많은 나라는 또 상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112개국을 다 해 놓으면 차라리 비자제도를 실시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전면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강하게 법무부와 상의를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법무부의 어려움과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이용호 위원 지난번 1월 달에 보니까 일본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 방문객이 거의 50만 이렇게 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절반도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관광여행수지 적자가 아주 심각할 거다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또 최근에 챗GPT 열풍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요즘에 빌게이츠는 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의 첫 등장만큼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챗GPT 활용 관련해서 수석들과 비서관 모두에게 챗GPT를 써 보고 익혀라 이렇게도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챗GPT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챗GPT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데이터.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오면 뭐합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서 데이터? 그런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적어서 제대로 된 챗

GPT를 만들기 어렵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AI가 학습에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잖아요, 데이터를 이용하고. 문제는 저작권 침해나 아니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든 저작물이나 데이터를 갖고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내놓는데 그러면 그 원저작자가 답변에 대해서 ‘이것 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제적인 흐름, 해외 입법례 등에 비추어서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챗GPT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희 문체부는 챗GPT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말뭉치 이것을 신속하게 더 공급을 하고 데이터를 더욱 많이 축적하자 이런 측면에서 TF팀이 하나 가동이 됐고. 또 한 팀은 지금 말씀하신 저작권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데이터 저작권하고 소위 AI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서 만들어낸 또 분석물에 대한 저작권, 그러니까 챗GPT가 만든 어떤 분석물에 대한 저작권,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문체부에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균형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법을 수립해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또 문화재청장님, 여러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적도 하셨고 또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 의원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질의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충 설명하는 것을 충분하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위원장, 이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일상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상감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일상감사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일상감사는 취지가 좀 더 정밀하게, 시간을 두지 않고 신속한 것,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문체부 관계자에게 일상감사 실적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2021년은 7건, 지난해에는 단 4건만 실시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감사 대상 사업이 뭐냐라고 요구했더니 계약업무 및 교부금 업무 관련 사업을 구분해서 2021년 138건, 2022년 175건이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일상감사 대상 사업이 313건인데 이 중 단 11건, 3.5%만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진한 거지요.

제가 좀 비교해서 죄송한데 문화재청이 지난 2021년 162건, 지난해 167건 해서 2년간 329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관 꼭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문체부에서 일상감사 무풍지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윤덕 위원 ‘부족하다’ 이런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상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실상 문체부 내에서 일상감사가 전혀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일상감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굉장히 큰 감사가 생기지 않을 방어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 국정감사에서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보존·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 장관님께서도 대통령실 자문단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국정감사 때 하셨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침’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했고요.

○김윤덕 위원 자문단 결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협의를 해 갖고 하겠다고……

○김윤덕 위원 협의를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그래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청 내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 청와대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청와대 권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추진기간,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 이것 장관님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비슷한 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보존과 활용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행하고 공존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이 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지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 구체적인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비슷한 내용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청와대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

역비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을 볼 때 현재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청와대 자문단, 문체부, 문화재청이 원활하게 협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2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청에서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동안 문체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 결과 내용이 실제 문체부가 작년부터 기획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또 올 2023년에 진행하는 내용과 충돌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저는 충돌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와대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과 관저를 신축하면서 땅을……

○김윤덕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땅을 다 파 봤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활용에 대해서 청와대 자문단, 문체부, 문화재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계획이 수립될 때에 이미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문체부하고 청와대하고 면밀하게 협의가 된 결과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용역과 그다음에 활용들이 논의되고 진행이 될 때 그런 충돌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확신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앞으로 좀 더 각 부처 간에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위원님, 그리고 그 용역은 아직 저희가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계획 예산 항목에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청장님, 그러면 더 심각하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산 항목이라는 것은……

○김윤덕 위원 예산도 다 항목에 수립되어 있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것은 저희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그 계획을 이미 수립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없지만 이러저러한 계획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청과 문체부가 협의되어서 통일성 있게 진행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청와대의 보존·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해서 청와대의 보존·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잠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이번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에게 같이 선임된 걸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래서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의 문체부 역량을 거기에다 집중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과 함께 공동조직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현재 잼버리가 성공한 잼버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본래의 의미대로 청소년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에 대해서 잘 진행하는 것 또 행안부장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제대로 진행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꽃봉오리 같은 게 뭐냐 하면 5만여 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K-컬처가 제대로 선보이고 제대로 뭔가 보여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체부장관께서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 되신 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통해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K-컬처를 정말 제대로 보여 주는 그런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계속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박보균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각종 규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여행업이 좀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개선 방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관광여행이 회복 추세입니다마는 아직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특히 국외관광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광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여행사 매출의 한 3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얼마 전에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제일 지금 여행업계에서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문제입니다. 단체관광이 아직도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단체관광 제한 해제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 문제는 관광업계의 굉장히 소망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상호관계 또 코로나19 방역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봐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업계의 염원을 많이 전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항공 편수라든지 또 관광 관련된 호텔 또 외식업소 이런 인프라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회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여권 발급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항공 편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도 비쌀 뿐더러 티켓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축된 항공 편수들이 수요에 맞춰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관광업계 생

태계의 부활에는 항공 편수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하고 그 문제도 아주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빠른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가 국가기관이 이순신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영정 작가인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과 관련해서는 작가의 친일 논란이라든지 또 복식 고증상 몇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면서 여러 차례 지정 해제를 문화재청에서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관련 심의절차가 계속 이루어졌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런 문제점 이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속인 측에서 저작권리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원짜리 주화라든지 역사교과서 이런 데도 보면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장우성 작가 상속인 측에서 그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소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일단은 저희가 후속조치는 계속 준비는 되어 왔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관한 것은 유관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지만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최종 판단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에 따라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문체부장관님, 사실은 장우성 작가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 위인들의 표준영정들이 친일 논란이라든지 고증 논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표준영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집단기억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해체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문제는 현충사라든지 이순신 장군의 덕수 이씨 종친회 의견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장우성 화백 자손들의 의견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표준영정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정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개개 영정 작가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하나하나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충분하구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우성 작가의 표준영정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다 보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그리고 이미 제기된 문제들이 많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지정 해제를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관광공사 김장실 사장님 나오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임오경 위원 장관님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7년에 관광산업 300억 달러 달성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임오경 위원 스포츠 국내·국제대회를 관광산업으로 접목시킨다면 2027년 300억 달러가 아니라 400억 달러 이상도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임오경 위원 동의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동의한다라는 그 말씀은 스포츠

대회를……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지만 정말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스포츠대회를 관광으로 봐 달라는, 관광산업으로 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장 내년에 스포츠 국제대회가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있고요. 또 비유럽권 최초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내년에 개최가 됩니다. 관광공사와 대한체육회,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관광산업의 큰 역할, 성공리에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에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선사한 분야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입니다. 특히 BTS, ‘기생충’,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들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감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북은 심각한 대립국면에 처할 때마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개최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 공동응원 등 남북 평화대회 추진의 긍정적 측면을 살피서 평화와 흥행을 모두 잡을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인기 종목을 더 알리는 좋은 기회,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회를 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을 하면 미사일 도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체부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장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4년 강원도 청소년올림픽 평화올림픽 개최 촉구 결의안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재검토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문체부에서 수정안 제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핑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오경 위원 아니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요. 미사일 얘기를 계속 제가 들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저희가 지금 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관광산업과 스포츠 이슈 그리고 정부가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문화예술·스포츠가 또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청장 주제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1월 맞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거기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 내부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셨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국가유산기본법은 법안소위에서도 계류된 상태인데 너무 앞서 나가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게 일부에서는 우리 청에서 문화재……

○임오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불과 3주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는 국가유산 명칭 개편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제 지역구인 광명에는 오리서원 사당이 있고 강남 수서동에는 필경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각 전주 이씨 문중에서 소유,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전국의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종교 관련 문화재 외에도 전국에는 문중 등 법인·단체 소유 유산이 1742건, 개인 소유가 678건으로 총 24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개편할 경우 이러한 문화재들이 국가로 귀속된다는 오해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러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문화재를 소유한 국내의 수많은 사찰, 문중, 개인들에 대해 개별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이루어졌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있으니 일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개인 외 문중들도 다시 한번, 개인 외 법인 또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 수렴을 거쳐 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일단 저희 국정과제 중의 하나고요.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지만 국가관리의 총체적 유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연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이 같이 합일되어서 종합적인 국가유산이라는 체제로 가는 것이고.

얼마 전에 다행스럽게 문화유산 말고 자연유산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만 남아 있어서 아마 국가유산체제로 가게 되면 그동안 60년 동안 문화재라는 재화 개념의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의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겠고요.

물론 대한불교조계종이라든가 명칭 사용 동의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그리고 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좀 앞질러서 그렇게 벌써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바뀌야 된다고 앞서 나가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법안이 저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임오경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류호정 의원님, 김운덕 위원님, 이용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 최응천 청장 이하 소관 부처, 오늘 참석하신 소속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 승 수	김 예 지	김 운 덕	류 호 정
배 현 진	유 정 주	이 개 호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용	이 용 호	임 오 경
임 종 성	전 재 수	홍 익 표	황보승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박 회 석
입 법 심 의 관	전 완 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박 보 균
제 1 차 관	전 병 극	
제 2 차 관	조 용 만	
기획조정실장	강 석 원	
문화예술정책실장	윤 성 천	
국민소통실장	박 용 철	
감 사 관	구 경 렬	
정책기획관	최 성 회	
문화정책관	정 향 미	
예술정책관	이 은 복	
지역문화정책관	이 중 료	

소 통 정 책 관
소 통 지 원 관
콘 텐 츠 정 책 국 장
미 디 어 정 책 국 장
체 육 국 장
체육협력관직무대리
관 광 정 책 국 장
관 광 산 업 정 책 관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중앙박물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영 화 진 흥 위 원 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 무 처 장
문화재청

김	용	섭
김	현	준
김	재	현
김	도	형
최	보	근
이	정	미
박	종	택
김	상	욱
김	대	진
윤	성	용
김	장	호
윤	범	모
김	장	실
조	현	재
조	현	래
박	기	용
채	윤	희
김	규	철
표	완	수
박	춘	섭
이	진	식

청 장
차 장
기 획 조 정 관
문 화 재 정 책 국 장
문 화 재 보 존 국 장
문 화 재 활 용 국 장

최	응	천
이	경	훈
이	종	희
최	원	일
이	종	훈
채	수	희